

노은동성당 거룩한독서 37강의 (2026.6.17.)

◎ 지혜문학의 특징¹⁾

- 1)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 2) 출발점이 인간의 이성이다.
- 3) 행복에 대한 관심(현세적 행복)
- 4)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라 해서 하느님을 배제하지 않는다. (잠언: 권선징악 -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율기에서 ‘인과응보’가 유지가 안될 때, ‘하느님’이 문제가 된다.)
- 5) 문학적 특징 - 대구법 사용 등.

※ 지혜문학의 세 단계²⁾: 지혜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라는 점이다. 오경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신 율법에서 출발하고 예언서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시작하는 데에 비하여, 지혜문학은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하느님을 찾는 길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하느님을 감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 우주와 자연 현상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하느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다.

잠언은 주로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러한 지혜를 ‘고전적 지혜’라 부른다. 다른 여러 나라의 지혜문학과 공통된, 아주 전형적인 지혜문학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 세상의 질서에 관심을 집중하며,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깊음이 있음을 역설한다. 관심은 현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과 악에 대한 깊음도 현세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질서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디에선가는 분명 한계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일이 원리원칙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언제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살면서 언젠가는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고전적 지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율기와 코헬렛이 이 단계를 대변한다. 잠언이 이 세상의 정돈되고 질서 있는 영역에 머물렀다면, 율기와 코헬렛은 세상의 끝까지 가서 그 한계선을 붙잡고 몸부림친다.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율기와 코헬렛이다.

하지만 지혜문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한계선에서, 현인들은 하느님을 만난다.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혜를 알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시며, 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려 주심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알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의 특징은, 마지막에 가서 계시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하느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알려 주셨음을 깨달은 다음, 집회서와 지혜서는 율법(토라)으로 돌아간다. 참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안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잠언 1,7)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은 이 말로 시작하여 이 말로 끝난다. 인간의 이성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이 구약성경 지혜의 특징이었다.

고전적 지혜	잠언	현세의 인과응보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질서를 파악
이의 제기	율기, 코헬렛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질서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
새로운 해답	집회서, 지혜서	내세의 인과응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혜에 도달

1) 안소근, 대전가톨릭대학교 지혜문학 강의 중, 2014.
 2) 안소근, 구약 중주, 314-317.

◎ 잠언3)

○ 배경: 기원전 6세기, 기나긴 바빌론 유배 기간은 유다의 유배자들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이 되었다.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힘겨운 여정을 동반했다. BC 538년에 키루스가 귀향을 허락한 다음, 점진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공동체는 그 폐허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학적, 종교적 유산들도 복구되기 시작했다. 그 시대에 오경이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중심인물이 모세였으므로 오경은 ‘모세의 율법’이라 일컬어졌다. 예언자들도 마침내 예언자들로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저술들은 수집되고 재해석되어 각자의 이름 아래 놓이게 되었다. 행적과 업적을 전해주는 설화들이 남아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는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윗의 이름은 시편과 결부되었고, 탁월한 의미의 현인인 솔로몬(1열왕 3장)의 이름에는 재구성되고 정리될 수 있었던 지혜 전체가 결부되었다. 이렇게 하여 잠언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잠언 1,1)이라는 제목을 지니게 되었다.

○ 잠언의 짜임: 이때에 작성된 긴 서문(잠언 1-9) 다음에, 7개의 잠언 모음집이 배열되었다. ‘훌륭한 여인’(잠언 31,10-31)에 대한 묘사가 결론 격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유배 이후에 편집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p>I. 서문(1-9장)</p> <p>II. 7개의 모음집</p> <p>1) 솔로몬의 잠언(10,1-22,16)</p> <p>2) 현인들의 말씀(22,17-24,22)</p> <p>3)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24,23-34)</p> <p>4)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스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25-29장)</p> <p>5)마싸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30,1-14)</p> <p>6) 제목이 없는 수 잠언 모음(30,15-33)</p> <p>7) 마싸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31,1-9)</p> <p>III. 결론: 훌륭한 여인(31,10-31)</p>

※ 1)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전체의 뼈대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책의 제목에 반영되었다. 4)는 유배 이전인 히스키야 임금 시대(BC716-687)에 체계를 갖추었다고 밝힌다. 5)아구르와 7)르무엘은 아라비아 북부의 한 부족 출신이었다. 성경은 외국의 지혜를 받아들인 것이다.

○ 솔로몬의 역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다윗에 의해서였다. 다윗은 행정관이라기보다는 정복자였다. 그 국가를 정비하고 행정 조직을 갖추며 국제 관계를 체결하고 성전을 건설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과업이었다. 다윗이 처음 만들고 시작한 것을 솔로몬이 확립했고, 평화가 뒤따랐다. 또한, 이제 확립된 새로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목록을 작성한 것도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 - 솔로몬은 나라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조사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는(1열왕 10,1-13) 그 여왕과 솔로몬이 대상들의 왕래를 허락하는 협약을 체결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음을 전제한다. ... 예루살렘 궁정은 다른 민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구두로만 전해지던 지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발상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두 개의 잠언집을 그에게 귀속시키고 그가 삼천 개의 잠언을 지었다고(1열왕 5,12)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 다루는 주제들

① 잠언의 현인들의 속고와 탐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들이 우주와 동물을 다루는 것은 그것이 인간과 유사하고 가깝기 때문이다.

② 인간의 관계 - 첫 시작은 권위 특히 임금과의 관계이다. 다음은 가족 내의 관계로, 아내에 대한 관계와 자녀들의 엄격한 훈육을 이야기한다. 가난한 이들, 그리고 부유함과의 대조를 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게으른 이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육과 자제가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말이다. 그의 말은 경솔한 말인가 아니면 속고에서 나온 결실인가? 조롱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못

3) M. Gilbert, 하늘의 지혜, 안소근 옮김, 대전가톨릭대학교 강 의록 2014, 9-16.

하다. 한편, 지혜로운 사람(의인)과 악인 사이의 대조는 잠언 10,29-11,6에서 보듯 도덕적인 처신이 현인들의 분석 대상임을 입증해 준다.

※ 잠언 전체에서 의와 지혜는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음과 악함은 풀 수 없게 뒤엉켜 있다.⁴⁾

③ 좋은 교육이나 덕과 성공한 삶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④ 하느님은 우주의 절대적 주인이시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은 교만(16,5), 속임수를 쓰는 계획과 음모(11,20; 15,26), 거짓말(12,22), 거짓 저울(11,1; 20,23), 악인들의 재물(15,8)등 이다. 도덕적 행위는,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언들은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의 창조주와도 연관된다고 말한다. “약한 이를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쌍한 이를 동정함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14,31; 17,5; 19,17 참조). 예수님도 이렇게 단호하실 것이다. (마태 25,40)

○ 지혜를 가르치는 것⁵⁾: 잠언의 첫째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은 지능 지수와 감성 지능을 비교했다. 감성 지능(EQ, Emotional Intelligence) 자체가 지혜는 아니나, 비슷한 점이 많다.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제, 열정, 끈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또한 ‘좌절의 상황에서 인내하는 능력, 충동을 제어하고 만족을 뒤로 미루는 능력,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도 생각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능력, 공감하며 희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지능 지수가 ‘무엇을 아는 것’(knowing that)이라면, 감성 지수는 ‘방법을 아는 것’(knowing how)이다.

4) 트럼퍼 롱맨 3세, 지혜신학 개론, 유창걸 옮김, CLC 2020, 47.
5) 트럼퍼 롱맨 3세,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전의우 옮김, IVP 2005, 19-20.

○ 평행법⁶⁾

임금은 의로운 혀를 기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이를 사랑한다.(16,13)

구약의 시는 대개 평행을 이루는 행으로 이루어진다. 평행법을 흔히 오해하는데, 두 행은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후반부는 전반부의 생각을 예리하고 강하게 만든다. 평행법은, 이 부분을 천천히 숙고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반의적 평행법’이 있다. 특히 10-15장에 집중되어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짓고
미련한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허문다.

바른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이 싹트지만
지혜로운 이의 입술은 그를 지켜 준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뿜는다.(14,1-5)

왜 반의적 평행법이 많이 사용될까? 잠언의 의도는 독자들에게 삶의 근본적 선택, 지혜와 우둔함 사이의 선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반의적 잠언들은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지혜는 건설적이며 야훼를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교만한 말을 피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둔함은 파괴적이며 야훼를 멸시하고, 자랑하며 거짓을 말한다. 반의적 평행법은 전체적으로 잠언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떠받쳐 준다.

○ 유의할 점⁷⁾: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리라 생각하고 잠언을 읽는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잠언 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6)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54-57.
7)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68-69.

(26,4-5)

※ 우리 속담도 마찬가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잠언은 보편적으로 참된 율법이 아니라, 상황과 관련된 원리이다. 대답은 대답에 연루된 미련한 자의 특성에 달려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가 단순히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힘만 쓰는 자인지, 아니면 대답이 미련한 자나 아마도 옆에서 듣는 자들에겐 유익한 것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평가해야만 한다.⁸⁾

☞ 그 어떤 잠언도 절대화될 수 없다. 그렇기에 잠언에는 현실에 대한 부분적인 견해가 함축되어 있다. 두 개의 격언은 원래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4절과 연관된 격언은 많다. 17,12을 예로 들 수 있다. (“새끼 잃은 암곰과 마주칠지언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마라.”) 4절의 의미는 위험하고 해로운 영향력을 지닌 미련한 자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절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누르고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⁹⁾

○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¹⁰⁾: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 (“우둔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술취한 자의 손에 놓인 엉덩귀와 같다.(27,9)”)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잠언을 적용할 줄 안다. 그러나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지혜에 이르는 길¹¹⁾

① 관찰과 경험: 지혜로운 사람은 관찰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경험했으며 관찰을 통해 배웠다.

② 전통에 근거한 교훈: 관찰과 경험은 개인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식견 있는 분석에 의존하기도 한다. (아버지/스승)

③ 실수에서 배우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에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을 바꾸기를 거부한다. - “교훈(무사르, 훈계)을 지키는 이는 생명이 이르는 길을 가지만 훈계(토카하트, 징계)를 저버리는 자는 남을 방황하게 한다.” (10,17)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며, 지혜는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오직 겸손할 때, 즉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할 때 이런 교훈이 삶에 유익을 끼칠 것이다.

④ 계시 - 모든 것의 근본/기초: 결국 지혜가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 잠언을 읽으며 주의할 점¹²⁾ - 잠언을 일반적 원리로 받아들이되 기계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욕기에 나오는 세 친구나 엘리후는 흡사 잠언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선한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며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는 죄인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는 잠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잠언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비롯된 한 시각을 표현한다. 따라서 보편화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동일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다른 잠언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잠언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잠언들을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경고다.¹³⁾

○ 서문(1-9장)과 지혜 - 서문은 잠언에서 마지막에 형성된 부분이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보다 더 강하게 예언자들과 신명기의 영향이 나타난다.

8) 트렘퍼 롱맨 3세, 잠언 주석, 임요한 옮김, CLC 2019, 729-730.

9) 롤랜드 E. 머피, 잠언: WBC 성경주석, 박문재 옮김, 솔로몬 2001, 328-329.

10)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70-71.

11)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71-79.

12)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81, 112-113.

13) 롤랜드 머피 · 엘리자베스 휴와일러, 잠언·전도서·아가, 전의우 옮김, 성서유니온 2015, 32-33.

※ 지혜 여인 - 명사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하는 언어에서 의인화를 통한 시적 이미지는 같은 성을 따라 이루어진다. ‘호크마’(지혜)라는 명사는 여성이며, 따라서 여성으로 의인화된다. 마찬가지로 9,13-18에서는 ‘케실루트’(우둔함)가 여성으로 의인화된다.¹⁴⁾

○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직: 낳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8,22-31)

※ 아버지는 1-9장에 걸쳐 ‘지혜 여인’에 대해 묘사한다. 지혜 여인의 반대편에 우둔함의 여인이 서 있다. 인생길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 만남이 있다. 남자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두 여인을 보는데, 두 여인 모두 ‘성안 높은 곳에서’¹⁵⁾ 말하고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초대에 응하고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14) 부르스 윌트키, 잠언 I, 황의무 옮김, 부흥과개혁사 2020, 137.
15) 당시 성의 높은 곳에는 신전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롱맨은 ‘지혜 여인’이 하느님을, ‘우둔함 여인’은 우상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37-46.

○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직: 엮어졌다)”(8,23)
☞ 요한 복음이 “아버지의 품에 계신(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요한 1,18) 아드님에 대해 말할 때, 아드님을 성부에게 의존하게 하는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상징을 사용한다.
☞ 아마도 지혜는 주님의 한 가지 속성이 의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혜는 주님의 생각,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세워진 주님의 계획일 것이다. 잠언 8,27-29는 우주에 질서와 안정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우주는 주님의 작품이지만, 지혜가 그분 곁에 있었다. 지혜는 주님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며, 동시에 주님과 결합되어 있고, 세상과 결합되어 있다.¹⁶⁾
☞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가 하느님의 지혜를 가장 심오하게 표현한 것이라 말한다.¹⁷⁾
-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론 일로 드러났다.”(마태 11,18-19)
-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말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골로 1,15-17)
☞ 교부들은 잠언 8장의 지혜를 ‘말씀’이신 성자에 대한 예표로 자주 읽었다. 이 하느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 브루스 윌키는 ‘잠언이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잠언은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잠언에는 통례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⁸⁾

16) Gilbert, 27-28.
17) 롱맨, 잠언 주석, 99.
18)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125-126.

○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야훼)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30,7-9)

☞ 부와 가난에 내재된 위험성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에 대한 충성이다. 배부르면 하느님을 부인할 수 있고(야훼가 누구냐?), 가난하면 도둑질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도둑질은 결국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¹⁹⁾ ⇒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쌀아들 양식이 아니라)을 주시고)

○ 잠언을 읽는 원리²⁰⁾

- 1) 어느 부분을 읽든지 잠언 전체의 구조를 염두에 두라. 1-9장에서 전개되어 8-9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길과 두 여인에 관한 이미지에 비추어 읽으라.
- 2) 둘째 행이 첫째 행의 사상을 어떻게 예리하게 하는지 또 어떻게 강화하는지 물음으로써 평행을 이루고 있는 잠언을 깊이 생각해 보라. (평행법)
- 3) 한 구절의 이미지를 규명한 다음, 비교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비슷하며, 어떻게 다른지 물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해석하라.
- 4) 한 구절이 표현하는 지혜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 지혜는 관찰, 경험, 전통, 계시 또는 이러한 것들 사이의 결합에서 오는 것인가?
- 5) 잠언은 모든 상황에 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물어보라.
- 6)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 그 분이라면 이 구절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생각해 보라.

19) 머피, 잠언, 374.

20) 롱맨,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219-220.